



한국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 취재를 위해 세스나그룹을 찾은 미키 이바라 NHK 뉴욕특파원(왼쪽 네번째)과 김성민 세스나그룹 사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세스나그룹 제공]

NHK, 한인 헤드헌팅업체 소개

뉴저지 세스나그룹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에 있는 한인 헤드헌팅 업체 세스나그룹이 일본 NHK방송에 소개된다.

세스나그룹은 NHK 취재진이 한국의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에 관한 취재를 위해 최근 자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성민 세스나그룹 사장은 “NHK 취재진이 한인 인재의 글로벌화와 취업 동향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취재내용은 10일 오후 6시15분(일본시간)부터 30분간 NHK 네트워크를 타고 일본 전역에 방송된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